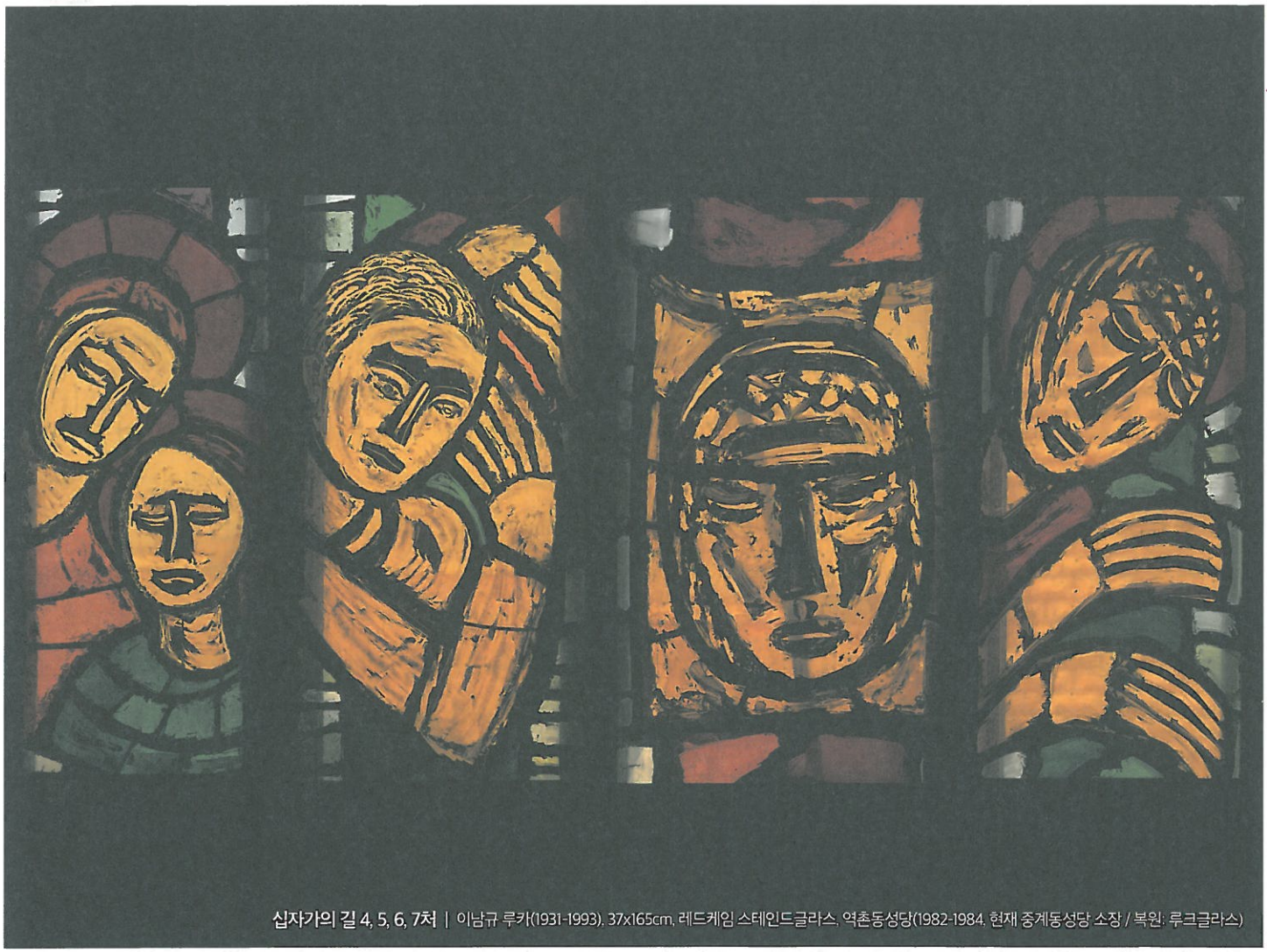
서울주보

제2438호 2023년 3월 12일(가해)
사순 제3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십자가의 길 4, 5, 6, 7처 | 이남규 루카(1931-1993), 37x165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역촌동성당(1982-1984, 현재 중계동성당 소장 / 복원: 루크글라스)

입 당 송 |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 탈출 17,3-7

화 답 송 |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로마 5,1-2.5-8

복음환호송 | 요한 4,42.15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 음 | 요한 4,5-42<또는 4,5-15.19ㄴ-26.39ㄱ.40-42>

영성체송 | 요한 4,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마음이 열려있는 이들의 만남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어느 순간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입어보니 뜻밖에 괜찮은 옷, 무관심하다가 나중에야 재미를 느끼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매력적인 음악 등등이요.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사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떠올리면 누군가는 고약한 냄새를, 누군가는 아름다운 노란빛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니까요. 사람이 부정적인 시선에만 머물고 있다면 전체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먼저 좋은 점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실로 인생은 아름다움의 향연이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을 들르셨어요. 사실 사마리아는 유다인들에게 무시무시하게 천대받던 지역이었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순수 유다인들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이 아시리아에 점령당했는데, 아시리아가 유다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타민족 간 혼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이는 혈통을 중시하던 유다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말을 섞는 것조차 금지할 정도로 경멸했는데, 북쪽 갈릴래아에서 남쪽 유다 지역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사흘밖에 안 걸리는 길을 그보다 두 배나 되는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한 여성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깊이 존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역시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장면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이를 받아들이는 이의 열린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는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느님과 하는 소통은 열린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기도드리고 청한다면 그것을 받기 위한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종종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곤 하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개인의 일들에 대한 당혹감으로 마음의 자물쇠를 채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위로의 신호를 보내심에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나는 하느님께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2독서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믿음 덕분에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닫힐 리 없고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테니….

사순 2주부터 5주까지는 아남규 작가가 십자가의 길 작품을 만들면서 묵상한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작품 설명

제4처 예수, 어머니와 만나시다 –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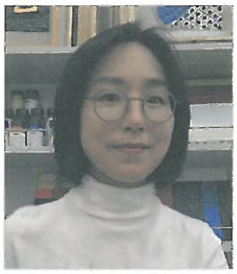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지다 –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마르 15,21)

제6처 베로니카, 예수의 얼굴을 씻어 드리다 –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2코린 4,10)

제7처 예수, 두번째 넘어지시다 –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루카 21,34)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성모님의 기도



유난이 글라라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

요즘은 서른이 넘어 시집을 가는 것이 크게 늦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서른 중반의 나이에 다소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흡사 길고도 험한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기다려야 하는 길고도 긴 오름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고된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졌으니까요. 오르막일지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풍경, 반짝이는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 울퉁불퉁한 땅바닥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나이도 마흔을 넘겼으니 새 생명을 기다리는 길고 긴 산행을 접어야겠다고 체념하며, 방향을 틀어 걷고 싶은 길로 자유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하느님은 왜 제게 이렇게 기나긴 오르막을 주셨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보니 제가 많은 기도를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은 기도가 있습니다.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한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자매님은 순례를 떠나기 전에 머나먼 프랑스의 성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뒤에 루르드의 성수와 예쁘고 귀한 묵주를 선물로 주시며 루르드의 마사비엘 동굴에서 기도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뒤에 생각지도 않게 새 생명을 선물받게 되었으며, 그해 연말에는 지금의 딸 이사벨이 태어났습니다. 저를 위한 많은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 후 이사벨은 유아세례와 첫영성체를 거쳐 매주 어린이 미사와 주일학교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반면에 저는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와 남편이 비신자라는 이유로 주일미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본당 앞마당에서 성모님을 뵐 때면 멀리서 기도해 주신 따듯한 기도가 다시 기억나고 신심 부족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루르드 동굴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성모 동굴 앞에서, 손에는 묵주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온화하면서도 슬픔을 머금은 모습으로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이 촛불에 담아 봉헌합니다.
저의 가족과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봉헌 후 저희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저희의 마음은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

06

"하느님을 믿나이다": 하느님의 이름 I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2022년 12월 24일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구 영상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달나라의 토끼를 상상하듯, 달에서는 지구나라의 무언가를 상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반지름이 6400km인 이 지구에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은 해양지각이 5km, 대륙지각의 가장 두꺼운 곳이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지구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우리는 광대한 우주 안 46억 년의 나이를 먹은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에서 마치 동그란 빵의 얇은 껍데기 같은 데에 '잠깐' 붙었다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지구는 평평하고,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에서 표현되는 하느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이 단순한 자연과학 서적이 아니라 신앙고백서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역사적 사건의 어떤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일차적 목적은 신문기사와 같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 안에서 어떤 분으로 드러났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증명 가능한 과학 지식을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하느님을 믿는가와 관련해서 하느님 이름의 계시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느님은 "나는 있는 나다.(YHWH)"라고 답하십니다. 이를 철학적 용어로 '자존자',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있는 나다.'라고 번역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거부입니다. 당신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하느님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그것은 신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판관 13,18)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존재의 실존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 존재는 경계선, 한계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느님은 당시 다른 이방인들의 신들과 같은 수준의 신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참 하느님으로, 신비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YHWH를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편 신학자들은 이 이름이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단어가 '~을 위한 존재'인 하느님을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너와 함께 있는, 있는 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있는 나'로서 계시는데, 동시에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신 분임을 당신 이름 안에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나와 함께 있는 '있는 나'이신 분이며,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있는 나'"이신 분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이 구약성경이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하느님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마티아 사도의 선출
(사도 1,12-26)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단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등에 자신의 이름보다 숫자를 크게 표시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축구 선수들은 등에 숫자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몇몇 나라 최고 공격수들의 등번호가 10번으로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아르헨티나 최고의 공격수 메시도, 프랑스 최고라는 음바페 선수도 10번입니다. 10이라는 번호는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 선수가 달았던 번호입니다. 이후 마라도나, 지단 같이 실력 있는 선수들이 10번을 선호했고, 축구에서 10번은 최고 실력을 가진 골잡이들의 번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 1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를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인 빌하와 질파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을 통해 건설되는 하느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열두 사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수난에 앞서 열두 사도에게 보상을 약속하면서, 나중에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면서,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루카 22,29~30)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사도들이 그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단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루카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전해 줍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밭을 산 후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다고 말이죠. 비참한 유다의 죽음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 맞이하게 될 슬픈 결말이고, 다른 하나는 열두 사도단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단의 일원이 될 누군가를 선발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그날부터 승천하신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증인이어야 합니다. 결국 사도의 조건은 주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분의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복음 선포 사명입니다. 이 복음 선포 사명은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될 것이며,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마티아의 선출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의 공동체가 구약의 열두 지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성경도 중요하지만 구약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환경칼럼

먹거리를 통한 그분의 초대

남희정 루치아 | 오색오미 대표

원래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냐시오 영성을 사는 씨엘씨(CLC) 회원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임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갔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파괴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이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등 고민을 하다가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땅과 먹을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사람의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몸이 되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농약을 써서 농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지구도 사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직접 친환경 방식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작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깊게 느낄 수 있었고, 환경 기후 변화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나아가 지구의 아픔도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텃밭 작물로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 나눔 활동도 했습니다. 반찬을 받은 어르신들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관심 가져주는 것에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음식을 통한 나눔이 그렇게까지 풍성한 사랑 나눔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텃밭을 통한 환경 교육 활동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영향을 주기에, 텃밭 근처 학교의 아이들과 건강한 먹거리를 맛보고 직접 요리도 배울 수 있도록, 지구를 살리는 텃밭 요리 교실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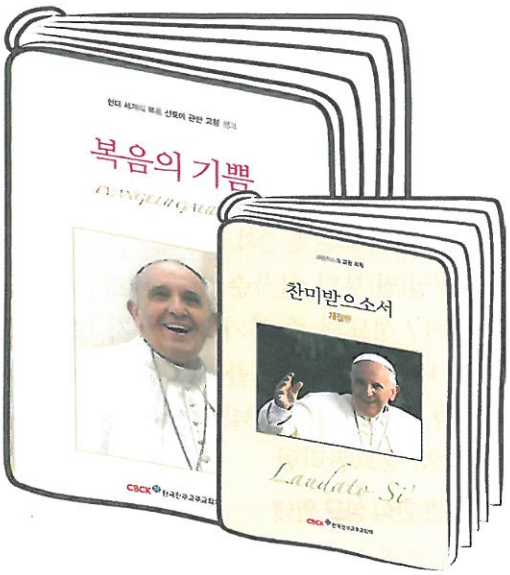
직접 농작물을 키우면서 생태적 감수성도 살릴 수 있기에 아이들이 온난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텃밭 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토종 종자 살리기 운동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락, 케이터링 사업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제가 키운 농작물을 이용해 친환경 도시락 가게 오색오미 밥상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색오미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밥상'이 목표이기에, 텃밭 작물과 직접 만든 양념을 이용해 반찬을 만들고,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 차원에서 다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텃밭, 먹거리 교육, 친환경 밥상 오색오미 활동들을 모두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저의 체험과 깨달음, 기쁨을 다른 신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 '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

신선한 사목적 상상력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2013년 7월 저는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7월 8일 자 어느 뉴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출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람페두사라는 섬을 방문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으로도 알려진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아래, 아프리카 가까이 있는 작은 섬(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아래 마라도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밀항선을 타고 유럽으로 오는 관문이며 항해 도중 많은 이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도….

교황님은 거기에서 미사를 주례하면서, 하느님이 아담과 카인에게 했던 물음을 전 세계인에게 던졌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한편에서는 막대한 부와 안락함을 향유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의 나은 미래를 위해 이주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물음입니다. '무관심의 세계화' 속에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갖고 우는 능력을 상실한 현대인에게 회심을 촉구하는 물음입니다.

교황님의 람페두사 방문에서 무엇보다 놀란 것은, '별 볼 일 없는' 섬을 교황님이 로마 밖 첫 사목 방문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보면 땅끝 마을을 방문한 셈입니다. 제가 교황이라면 '어디를 첫 방문지로 택할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제 사목적 상상력 속에 떠오르는 곳은, 많은 신자와 사제가 있고 여러 교황을 배출한 밀라노,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중요한 대교구였습니다. 제가 관행과 전통을 답습하는 진부한 상상력으로 행동한다면, 교황님은 '시골 처녀' 나자렛 마리아를 선택하는 하느님의 신선한 상상력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교황님의 사목 방문지나 새로 임명하는 추기경의 출신지는 제 상상을 뛰어 넘었습니다. 이른바 변방을 방문하고 변방에서 적지 않은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선출 당시 교황님에게 던져진 과제를 배경에 두고 보면 더 새롭습니다. 교황님은 교회 공신력의 추락을 낳은 아동 성학대에 대한 대응과 방지, 그리고 바티칸의 개혁이라는 긴급한 두 과제를 안고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해서 꾸준히 사목적, 제도적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람페두사 방문으로 표상되는 교황님의 행보는, 교회의 초점을 현안 문제가 아니라 본연의 사명에 두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키워드 두 개로 말하면, '변방'과 '여정을 함께하기(시노달리타스)' 즉 변방으로 나가서 현대인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위로하는 교회,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이가 함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3월 13일은 교황 즉위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황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대체로 영화 〈두 교황〉을 통해 얻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영화이지만 평면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황의 회칙 『복음의 기쁨』이나 『찬미받으소서』 또는 교황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신선한 상상력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

선교는 교회의 보편적 사명입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우석제(과테말라) 신부, 이준호(미국 알래스카) 신부, 정해성(일본) 신부, 이승규(프랑스) 신부를 해외 선교 사제로 임명하며,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하오니 참석하시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때, 곳: 3월 24일(금)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2)727-2424 해외선교봉사국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3년 2월 14일)

1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로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서울대교구, 2009년 사제 수품)를 임명.(3년 임기)

2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로 한민택 바오로 신부(수원교구, 2003년 사제 수품)를 재임명.(3년 임기)

3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 주교 연수 주제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위한 생태 사목의 방향"을 선정.

4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 심의, '사단법인 한국가톨릭사회복지협회'(가칭) 설립에 관한 논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주교회의 대표와 교체 대표 선출,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조직 개편과 위원장 선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논의, 주교회의 전국기구의 2023년 예산안 심의,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 계획 보고, 고대 그리스도교 문헌 총서 번역 사업 보고, 2023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 계획 보고 등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 5일(수) 오전 10시

차량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3월 6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원-조기 마감 가능)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5일(수)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1년 3월 15일 이용유 베네딕토 신부(36세)
- 1983년 3월 14일 박성종 프란치스코 신부(60세)
- 2005년 3월 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교구청 알림

제48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3월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홍수원 개인전: 1전시실
이미영 개인전: 2전시실
윤주연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8일(수)~16일(목)

'슬픔 속 희망찾기' 3월 유가족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3월18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경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한국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 개강
주제: '교회사, 생태 · 환경을 말하다'
때: 3월16일~5월25일 매주(목) 19시~20시(60분 / 10주간)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회비: 8만원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교회사동인회
입금시 이름 기재 / 입금 후 문의처로 전화연락 요망
문의: 02)756-1691(602) 한국교회사연구소, 010-3348-1901 이충자, 010-6764-7004 천강우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3월14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60차 미사 3월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곡산 본당, 송림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사목국 직장사목팀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문의: 010-5760-6638 단장
연습 · 미사: 매주(금) 19시30분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명동대성당 늘푸른 청년 주일학교 봄학기 개강 및 견진성사
1) 늘푸른 청년 주일학교 봄학기 개강
주제: 언박싱, 믿음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대상: 35세~45세 청년 / 회비: 3만원(현금 접수)
때, 곳: 3월18일~6월10일 매주(토) 17시30분, 교구청 501호
접수: 3월4일 · 3월11일 17시30분~18시30분, 교구청 501호 현장접수 / 문의: 카카오채널 '늘푸른청년주일학교' 02)3407-3921
2) 주교좌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3월19일(일)~4월9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4월16일~5월21일 매주(일) 13시30분~15시30분, 교구청 401호(6주간 / 대면수업)
견진성사: 5월28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사무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박희전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월 셋째주(금) 3월17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3박4일)
회비: 115만원·75만원 / 문의: 010-3645-9028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때, 곳: 9월6일~20일(14박15일), 터키-이스라엘
인솔: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토아올림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주님 탄생 예고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때: 3월13일(월) 9시30분~12시 / 문의: 010-2724-4819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미사 있음, 회비 없음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3월22일(수) 19시30분 / 대상: 남녀 청년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401호 / 010-7197-1390

천주교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 문의: 010-8898-6770
때: 3월18일(토) 오후 1시~5시 / 강사: 이상기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우이동 명상의 집 3월 피정 / 문의: 02)990-1004

사순 피정	3월14일·21일·28일 매주(화)
개인 피정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4월3일~5일, 4월11일~13일
성지순례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4월1일(토)~2일(일), 5월13일(토)~14일(일)
3박4일	4월27일(목)~30일(일), 5월4일(목)~7일(일)
8박9일	3월20일(월)~28일(화), 4월13일(목)~21일(금)
40일	4월11일(화)~5월20일(토)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3월20일~4월24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759-3473

3월20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끊음 1	신동규 신부
3월27일(월)	세속정신 끊음 2	조용준 신부
4월3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이병근 신부
4월10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박상희 신부
4월17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이병근 신부
4월24일(월)	성모님께의 봉헌식 미사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성독) 심화 피정
때: 4월27일(목)~30일(일)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곳: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 / 회비: 38만원(1인실)
문의: 010-8599-312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3월17일(금)~20일(월)·4월14일(금)~17일(월)·5월5일(금)~8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서울대교구 젊은이 성령세미나
내용: 새 생활을 위한 성령 피정 / 회비: 6만원
때, 곳: 3월18일~19일,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카톡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DM: @ruah.fiat
문의: 010-2140-5149 청년성령쇄신봉사회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강사: 한연흠 신부, 이현주 회장 /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때, 곳: 3월18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찬양: 고영민, 정진숙, 손현희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3월18일~20일·3월24일~26일·3월28일~30일·4월1일~3일·4월10일~12일·4월13일~1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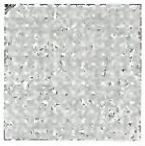
이콘강습—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12주)
곳: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돈암동, 주최)
문의: 010-6746-1997 (문자) / benedictseoul1987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청년, 직장인 / 카카오톡 ID: k_orff
때: 4월11일~5월2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3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 모집
대상: 가르멜 기도를 배우고 살고 싶은 교우
때, 곳: 매월 2회(2년 과정) 첫째주·셋째주 화요반·목요반-오전대면반(010-4495-7764), 저녁Zoom반(010-7924-7334) / 주최: 전교가르멜수녀회 영성의 집(서울)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 주제: ① 행복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② 고통에 대한 사색 ③ MZ세대와의 만남 2편 ④ 시노도이-함께 가는 사람들 ⑤ 이집트로 들어간 요셉과 나온 모세 ⑥ 고통을 딛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⑦ 지금 여기-거룩함이 생겨나는 곳 / 강사: 임숙희 박사, 주원준 박사, 최원준 교수 및 예수회 사제 송봉모 신부, 이흔관 신부
현장 강의: 3월14일 개강, 매월 둘째·넷째주(화) 오전 10시~12시(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 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 문의: 02)727-2472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5월3일~17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 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성경 강학회 '복음과 공동선' 강학회
주제: 마르코 복음과 공동선 / 강의: 이기우 신부
때, 곳: 3월8일~6월21일(16주), 흑석동성당 교육관 301호 / 회비 없음, 교재비 있음
접수: 수강 원하시는 시간에 바로 출석하면 됨
문의: 02)816-2961 흑석동성당

오전반	매주(수) 11시	오후반	매주(수) 20시

'예닮영성' 기초 과정
I 나의 하느님 / 주1회·12주·1시간30분 교육
문의(접수): 02)472-3217(www.물이솟는샘.org / www.wellingspring.org)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이솟는샘

3월15일(수) 19시	가톨릭회관 205호	주수욱 신부
3월20일(월) 10시30분	교구청 501호	홍성만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강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매주 수업 / 미사 있음, 회비 없음

(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평신도 영성강좌
개강: 4월13일(6주) / 녹화강의(일주일간 수강)
회비: 8만원(청년할인 50%) / 문의: 02)333-9898 한국CLC

4월13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현재우 (종교학 박사, 서강대·수원가톨릭대)
4월20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4월27일	오병이어, 사랑의 힘	
5월4일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5월11일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5월18일	사랑의 질서와 영적훈련	

모집

시스띠나 남성합창단원 모집
지휘: 이호중 교수 / 문의: 010-9842-8818
곳: 시스띠나 음악원(신촌, 주최)

2023년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 모집
가르멜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교우
4월18일까지 접수 / 문의: 010-3459-8905, 010-3080-7224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절두산순교성지·서울대교구역사관 안내봉사자 모집
내용: 성지 안내봉사 / 활동기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합정동),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명동)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교우 / 모집: 3월13일(월)까지
교육: 3월18일(토)~26일(일) 2주간 (토·일)
접수: 온라인(https://url.kr/gsv1yq)
문의: 02)3142-4504 절두산순교성지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유명일 신부/ 문의: 02)828-3522
때, 곳: 3월13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3월20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나눔: 김정혜(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때, 곳: 3월18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3월27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 접수 필수
때, 곳: 3월17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102호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역삼동성당 영어미사
때, 곳: 매주(일) 오후 4시, 경환당
Time: Every Sunday at 4pm
Venue: Kyunghwandang of Yeoksam-dong Catholic Church(B1) / 문의: 010-7476-6325 신라헬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3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묘주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1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잔디 미사장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가정의 치유와 관계회복 성화를 위한 특별미사'
주례: 손희송 총대리 주교와 사제단 공동집전
때: 3월19일(일) 오후 3시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 문의: 02)3147-2402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3월16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c.or.kr)

나루 상담센터(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영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곳: 논현동 / 문의: 010-9139-1937 윤희순 수녀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피정
수도자, 청소년, 예비자, 성인 피정
침묵 대월 기도 피정: 4월6일~9일·5월12일~14일
문의(접수): 032)465-0835(www.brotherhood.or.kr)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 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관계역동적 집단상담 및 치유훈련	3월28일~5월30일 매주(화) 오전 10시~13시(3시간·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강박증, 대인관계 부적응 등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고사 또는 돌연사로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4월13일~6월1일 매주(목) 14시~17시(8주)
곳: 용산성당(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3월26일(일)까지 접수 / 010-8891-4572 용산성당

유관단체 알림

코로나로 중단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월 세번째(토) 3월18일 오후 4시
곳: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 교육 '토닥토닥잘될거야 심리여행': 4월3일~5월1일 (월) 10시~12시(5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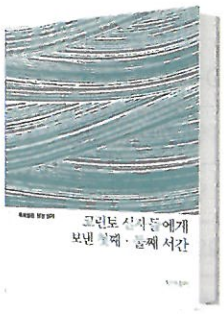
직원모집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및 자원봉사자(의사) 모집
내용: 자원봉사자 의사(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신경정신과), 직원 간호사 0명·간호조무사 0명 모집(토) 진료 / 문의: 02)940-1503(hfh1990@daum.net)

서울대교구 성 앰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원 0명(계약직, 교구청 소속, 정규직 전환 가능) / 문의: 02)2280-1784
업무: 조리 등 주방업무(단체 급식 경력자 우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타교구는 주임 신부님 추천서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3월26일(일) 9시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3월12일(일) 13시30분~17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예수회	수시	한국관구 성소실	010-8733-0627(vocation.jesuit.kr)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월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4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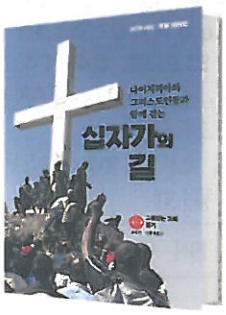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 둘째 서간 문제집

가톨릭 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60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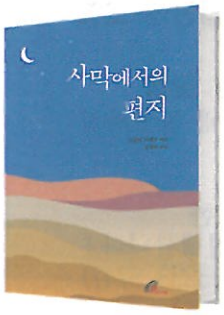
신간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지음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 40쪽 | 무료 배포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박해를 받는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고백을 담은 십자가의 길 책자를 준비했다. 온갖 폭력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과 기도로 동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간

사막에서의 편지

카를로 카레토 지음
바오로딸 | 224쪽 | 1만1천원
문의: 02)944-0944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비롭다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여는 저자 카를로 카레토. 가톨릭 활동 단체를 이끌며 이름난 활동가로 살다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 홀연히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게 된 이유를 전한다.

디지털 앨범

가톨릭성가 사순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딸뮤직
문의: 02)944-0944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개의 음반으로 선보였던 가톨릭 성가 가운데 사순 성가들을 모아 디지털 앨범으로 발매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15곡이 담겨 있어 성가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 가톨릭 성가를 감상하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도록 이끌어 준다.

공연

국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한국합창교향곡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2)580-1300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 페이지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합창교향곡>이 3월 21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작곡가 한아름의 초연작으로, 격변하는 시대 속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옛 선조들을 되새기고,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긍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페라

마술피리

입장권: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문의: 02)399-1783 서울시오페라단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 페이지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8명 30% 할인

서울시오페라단이,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를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밤의 여왕'의 부탁으로 왕자 '타미노'가 '밤의 여왕'의 딸인 '파미나'를 악당에게서 구출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제227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4월 7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 4월 2일(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3월 23일(목) 오후 8시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예비신자는 3월 26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장소
주일반 (오전 9시)	교육관 304호
수요반 (오후 8시)	

⊙ 2구역 미사 봉헌

일시 : 3월 16일(목) 오후 7시
장소 : 송미섭 세실리아 자매님 댁

⊙ 3구역 미사 봉헌

일시 : 3월 17일(금) 오후 7시
장소 : 김은옥 미쉘 자매님 댁

⊙ 성소후원회 미사 : 3월 21일(화)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구반장 회합

일시 : 3월 12일(주일) 12시 / 소성전

⊙ 남성 울뜨레야

일시 : 3월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병자영성체

일시 : 3월 24일(금) 10시 미사 후

⊙ 문화학교 개강 및 학생모집(주일학교)

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쿠렐레, 영어
개강 : 4월 1일(토) / 매주 토요일 수업
수강신청 : 3월 15일(수) 오전 10시 ~ 24일(금)
접수및문의 :
카카오채널「연희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초등부 주일학교 보조 반주자 모집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주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습및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그룹원 모집

2023년 봄학기 성경 소그룹 나눔에 참여하실
청년을 모집합니다.
일시 : 3월 셋째주까지
과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과정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3. 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1	633 (30.4%)	583 (2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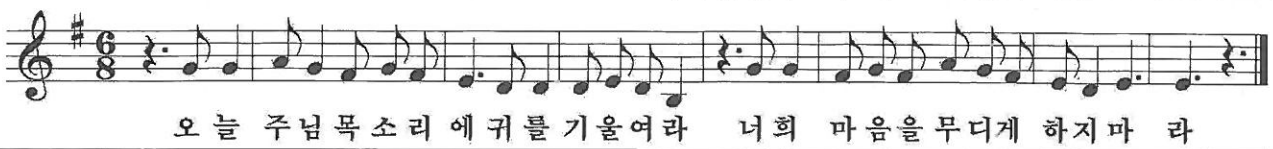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이종협 세례자요한 상가 ..... 이십만원

⊙ 감사헌금 (2월 27일 ~ 3월 5일)

허주성 .....이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미라클합창단 ....일십만원
김수민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익 명 .....오만원
송명진 .....일십만원
송명자 .....삼십만원
조호정 .....오만원
이현수 .....일십만원
이준환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2주일)

교 무 금 16,120,000원
주일헌금 6,474,800원

입당	119	봉헌	221, 511, 212	성체	164, 162	파견	489